

농림수산식품부



농가 의식변화 통한 자발적 혁신 '선진화 이끈다'

●정부 축산업 선진화 대책 무얼 담았나

- 농식품부, 5월말까지 TF팀 운영 개선안 마련...전국적 캠페인 전개
- 사육기준 미준수 농가 단속...외국인 근로자 시군에 신고 제도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과 종식 선언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을 한 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방역, 검역, 보상, 축산환경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고, 세부 과제별 개선방안 및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 의식변화를 포함하여 제도, 축사시설 등 모든 분야의 개선 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자발적인 혁신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축산혁명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축산환경 개선

- 축산업자 면허제 도입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축산농가의 자질과 의식변화에 있다고 보고, 축산업자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았거나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고, 해당 축산농가는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최소한의 면허 조건은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농가는 유예하며, 신규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앞으로 면허제 의무적용 대상 축종이나 축사 규모, 기존 농가에 대한 조치, 면허를 취득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한다.

- 축산업(시설, 장비) 등록제 실효성 제고 방안

두당 사육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와 축사시설 등록 당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업 등록제 의무등록 대상 축종 및 대상 농가를 확대하여 사슴과 염소를 추가하고, 사육시설도 50~300㎡ 초과에서 전 농가로 확대한다.

-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

채광, 통풍, 환기, 온습도 관리, 분뇨처리 등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 축산환경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농기별 축산환경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사업 지원시 차등하거나, 적정 사육면적 확보나 HACCP 인증 등을 의무화한다.

●방역 개선

의심가축 발생 신고시 곧바로 검역원이 현장출동하여 이동제한 등 조치 후 정밀검사하도록 개선한다. 방역지역에 대한 예찰체계도 위험지역에서는 전문 방역사가 하도록 하고, 경계·관리지역에서는 시·군담당자가 한다. 신속한 현지매몰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 현행 축산업등록제 의무 등록 대상 축종 및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가축질

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검역 개선**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관할시군에 신고하도록 제도화 하며, 해외여행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는 입국 후 72시간 이상 체류 후 축산농장에 출입하도록 제도화한다.

●**보상 개선**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정부의 이동제한 또는 폐쇄조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보상규정이 없는 수의사, 수정사, 도축·가공장, 사료공장, 인공수정센터 등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이동제한 중 새끼되지 생산 등에 의한 축사 부족으로 폐사되거나 매몰처리되는 가축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젖소의 경우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능력 젖소에 대한 추가보상금 지급 기준 중 이용잔여년수 반영비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한다.



**농촌진흥청, 축산 선진국 ‘호주’와 손잡아
축산 온실가스 저감과 축산물 안전성 연구협력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축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산 선진국인 호주와 이들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3월 17, 18일 양일간, 호주 뉴잉글

랜드 대학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분야에 대한 상호간의 연구개발 협력 확대를 약속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실무그룹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뉴잉글랜드대학과 소 사육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 유전력 분석을 통한 사료섭취량 제어, 반추위내 고 활성 섬유 분해효소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뉴잉글랜드대학은 이미 2004년 축산원과 소 유전체 관련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농진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즈대학과는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현재 축산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연구동향이 사전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여러 종류의 유해 식중독 미생물을 동시에 신속히 검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 연구원 상호 교환방문을 실시하고 2011년에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호주연방과학기술연구소(CSIRO), 가축유 전체연구소(Beef CRC) 등의 연구소와 도축장, 호주육류등급기관(MSA) 및 호주축산공사(MLA)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호주의 선진화된 연구개발 동향과 운영관리체계 등을 국내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MSA에서는 호주 쇠고기 맛등급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다.

축산원은 2009년 자체 기술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쇠고기 맛등급제 개발을 완료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농식품부의 협조를 얻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공동으로 현장적용할 계획이다.

News

이번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의 호주 방문은 최근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축산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저감과 축산물안전관리 연구개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장 김동훈 031-290-1681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조류인플루엔자 새로운 진단키트 현장적용 시범사업 실시

4종의 AI(type A, H5, H7, H9) 진단 가능, 약
5시간 소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작년에 새롭게 개발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 진단키트를 시범사업용으로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제공하고, 지난 3월 9일 전국 시·도 방역기관 진단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키트의 기본원리, 유전자 진단키트를 이용한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시·도 방역기관에서 시범용 AI 유전자 진단키트를 사용한 결과 일치율, 검사능력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앞으로 일선 가축방역기관에서 활용하게 된다.
- 이를 통해 검역원의 인력난과 과중한 검사업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한편,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지방 방역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전수한 진단키트는 4종의 AI(type A, H5, H7, H9)를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약 5시간이 소요되며,

- 키트를 이용할 경우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가 조

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검역원 관계자는 “AI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변이가 심해 진단에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확진은 어려우며,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반드시 검역원의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검역원에서는 금년 6월 말 정도에 시범 보급된 진단키트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여 하반기에 정식보급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청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도 2009년 대비 18% 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009년 국가항생제내성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항생제 사용량은 36% 감소하였고 대장균 등의 항생제 내성율도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통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감소하면 항생제내성 식중독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지므로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동물용의약품인 테트라사이클린의 경우 대장균 내성률은 유통축산물이 2008년 74.2%에서 2009년 68.1%로 6% 감소하였으며, 하천수도 2006년 51.1%에 비해 절반수준인 25%로 감소하였다.

주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내성률도 2008년 45.9%에서 2009년 26.6%로 19% 감소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또한, 축산농가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 실태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이 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9년 동물용 항생제 총 사용량은 998톤으로 2008년 1,211톤에 비해 18%, 2005년 1,553톤에 비해서는 36%감소하였다. 특히,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던 테트라 사이클린계 항생제의 2009년 사용량은 288톤으로 2008년 471톤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내성률도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확인되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일부 계열의 항생제는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 판매량 : 68톤(2008) → 88톤(2009)

※페니콜계 항생제 사용량 : 36톤(2008) → 55톤(2009)

식약청은 이러한 국내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감소는 인수공용 항생제 동물사용 금지 확대, 축산물의 동물용 항생제 잔류기준 확대 등 항생제 사용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일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그동안 추진된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 실태가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03년 부터 추진해온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강화 달빛동화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정 승)은 3월 16일 강화 달빛동화마을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교류와 농업·농촌 현장의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강화 달빛동화마을」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에 위치한 자연부락으로 지역 내에서는 효와 교육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8년에는 마을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이날 달빛동화마을 체험관에서 진행된 자매결연식에는 이효순 강화군의회 부의장과 달빛동화마을 공동대표를 비롯한 주민 20여명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정승 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승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농촌의 발전모델이 되는 달빛동화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달빛동화마을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매결연에 참석한 평가원 임직원들은 달빛동화마을에서 상추따기, 두부만들기 등 마을 일손돕기와 농촌 체험 활동을 하였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들은 1사 1촌 자매결연을 한 달빛동화마을에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 농촌관광, 농촌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자매결연 행사를 마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들은 마을 인근에 소재한 강화재가노인복

News

지회관을 방문하여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인들과 자원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쌀 130kg 등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업무연계를 위한 MOU 체결기관과 간담회 가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3월 19일 (금)에 9층 회의실에서 2007년 6월

MOU를 체결한 국립한경대학교를 비롯해 14번째인 국립진주산업대학교의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MOU체결기관 대표들은 업체들이 축산물HACCP 지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 축산물 브랜드사업과 HACCP를 연계하는 방안, HACCP 지정 후 사후 관리 방안, HACCP 발전을 위한 교육과 공동연구 방안 등에 대해 의견개진과 관심을 표시하였다.

석희진 원장은 이에 대해 “MOU 체결기관과의 업무연계성을 위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MOU 추진기관(대학)과의 지속적인 업무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협력 가능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는 축산물HACCP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금번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협중앙회



농협, 불법 조합장선거 제도개선으로 뿌리 뽑는다

- 불법선거 관련자 피선거권 제한, 금품제공자에
게도 과태료 부과
- 금품선거 등 불법 행위 발생 조합에 자금 회수
등 강력 제재
- ‘조합공명선거추진위원회’ 구성하여 획기적 개
선책 마련키로

농협이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 조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조합장선거 불법행위의 원천적인 차단에 나선다.

우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불법선거 관련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조합 자율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는 신고포상금제를 전 조합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불법선거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 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점포 설치 및 농협상표 사용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으며, 제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이미 지난 15일 23개 조합에 대해 자금 지원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농협은 조합원에 대한 사전 계도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최근 법무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법무부의 인재풀을 활용해 선거 관련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합원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금품수수에 관대했던 조합원들의 인식을 근본적

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그 동안 농협은 공명선거를 위해 조합 선거관리사무국 설치·운영,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통한 교육 실시, 공명선거 촉구 광고 게재, 신고포상금 제 도입 및 포상금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도개선과 해당 조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18일 조합장, 농식품부, 법무부 및 농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조합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장 선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수산물
유통공사



동경식품박람회 1억4천만달러 수출상담

김치, 막걸리 등 한국 농식품 일본 내 뜨거운 인기를 입증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2010 동경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10)’에서 107개 수출업체로 구성된 한국관을 운영한 결과, 작년보다 12% 증가한 1억4천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김치는 바이어들의 큰 관심 속에 1,230만달러 이상의 높은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막걸리 등 주류와 김도 각각 738만달러, 797만달러 이상의 상담실적을 거뒀으며, 이외에도 신선농산물과 유자차 등 박람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한국 식품이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홍초, 들깨기름 등 건강

식품과 젓갈류, 면류에 대한 상담도 활발하게 진행돼 일부 참가업체는 현장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aT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쌀가공식품, 주류, 신선농산물, 지리적표시제품 등에 대한 홍보관을 설치하고 이온그룹, CGC재팬 등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기업들이 참가한 ‘바이어 초청 리셉션’ 및 김치·막걸리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막걸리 카테일쇼’는 통로가 막힐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일본 내 막걸리 열풍을 실감하게 했다.

aT 관계자는 “박람회 기간 동안 간부직원들이 한국관에 상주하면서 일본 대형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축된 바이어, 대형유통업체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농식품 수출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